

제 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7. 8. 30. (수) 14:00~
- ◆ 장 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4층 회의실
- ◆ 참 석 : 조유진, 김거수, 김성래, 김진섭,
전 옥, 박 순, 나진숙
- ◆ 안 건 : 9건 15작품 (조각 8, 회화 5, 부조1 ,미디어 1)
[신규 6건, 재심 2건, 이의제기 1건]
- ◆ 결 과 : 승인 13작품, 부결 2작품
- ◆ 회의록 확인 : (서명), (서명)

위원 발언 내용

<위원장>

- 금일 심사위원 8명 중 7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본 회의 내용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녹취되며 회의록으로 기록되어 시민에게 공개 예정입니다. 본 회의 종료 후 참석 위원 중 2명에게 회의록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에 따라 서울시의 주관부서에서 확인서명 요청이 있을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.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수결로 사전토론 후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

- 우선 1번 작품부터 보겠습니다. 의견주시기 바랍니다.
- 1번 작품은 유사한 작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
- 작품의 작업 자체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워낙 강한 색채로 도장을 한 작품들이 많은데, 이 작품은 단색으로 도장했는지 의문이 듭니다.
- 도장된 작품은 어느정도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?
- 보통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.
-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되지만, 작품이 설치되고 나서 관리주체 등 유지관리 부분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작품이 노후화되서 벗겨지고 망가지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단서를 내보내야할 것 같습니다.
- 다음 2번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2작품입니다.
- 2-2번 작품을 보면, 조형적인 것만 봤을 때 선과선이 만나서 면을 만들고 하는 흐름을 표현한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구성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. 또한, 스테인레스 부분의 조형성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꽃부분이 조형적으로 거슬립니다. 다른 것 보다 조형성이 부족해보입니다.
- 일반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는 광고나 잡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작가의 독창성이 가미가 되어 새로운 이미지가 나왔으면 좋았을텐데, 또한 우레탄도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마 작가가 직접 도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회화 같은 경우 작가가 직접 하는 것인데 이 평면작품이 작품으로써 가치가 있는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
-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다음 3번 작품입니다. 이번 작품은 공모

작품이므로 배포된 자료를 보시고 가산점 여부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보통 공모작품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.
- 거수에 따라 가산점부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.
- 작품이 거대한 인체형상의 작품인데, 이미 서울시내에 인체형상의 작품들이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.
- 작가들마다 형식은 다르지만 작품형태는 유행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. 심의를 할 때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점수를 매기시변 될 것 같습니다.
- 다음 4번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.
- 작품이 아래 화강석과 스테인레스를 결합하여 한 것은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. 괜찮은 것 같습니다.
- 하단부의 화강석 높이가 35센치 정도 되는데 너무 날카로워서 우려가 됩니다. 앓을 수도 있는 높이인데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보입니다.
- 반대로 재료의 특성상 부조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. 석재와 스틸, 서로 성격이 다른 재료가 사용이 되어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미지로는 괜찮지만, 개인적으로 실제로 설치됐을 때 부조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
- 의견이 없으시면 5번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.
- 미디어 작품인데 가격이 적정한가요?
- 미디어 파사드도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. 어떤 것을 쓰는지 세부적으로 만나와있어 판단이 조금 힘듭니다. 그것보다 심의하면서 미디어 작품은 처음입니다.

- 다음 6번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
- 크게 눈에 거슬리는 작품은 아니지만, 같은 아파트 단지에 하나는 구상적인, 구체적인 작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추상적인 작품이 있는데 조금 부조화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
- 7번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심작품이고, 총 5작품입니다.
- 이전 작품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다만, 작품이 1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
- 위치만 바꾸고 크게 신경쓴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.
- 다음 8번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.
- 4심 작품인데 작가는 그대로인 것인가요?
- 네 작가는 동일합니다.
- 전 작품을 보니 랜더링이 워낙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심의에 새로운 작품은 건축물하고 같이 봤을 때 이전보다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. 다만 가격이 많이 고액인 것 같습니다.
- 이전 부결작품 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.
- 스테인레스 주물로 작업을 한다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
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<위원장>

- 오늘은 15개 작품 중 6-1번, 2-2번 작품이 탈락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되었습니다.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7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